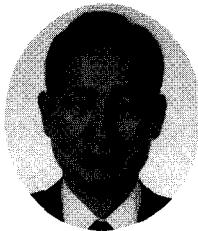


세제문제에 관한 소비자 운동



朴在柱

〈한국 환경독성학회 회장,
환경관리공단 기술이사〉

1. 消費者 運動의 目的

소비자운동의 목적을 요약하면 소비자에 대한 생활의 질적향상, 또는 방위(보호)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한 生活의 質에 대하여 言及하면 여러가지 있으나 요약하면 건전한 생활기반이 확립되고 그위에 충실향 생활문화가 발전되므로서 비로소 생활의 질적인 수준이 평가되는것이 바람직하다.

人間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이 확보되게끔 소비생활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소비자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뜻에서 1960年代初에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 제창한 소비자의 권리 확립을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와같은 운동은 생산자의 활동을 자극하여 상품의 품질, 수량의 적정화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와 생산자는 捷抗的으로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합적으로 向上시키는 관계라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든지 경시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 사업을 바로 발전시키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점에 대하여 간혹 양자간에 오해가 개재하여 불의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단, 소비자 운동을 상품의 국면에만 한정시키는 경향도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생활기반이 확립되려면 ① 생활소재, ② 생활환경, ③ 생활행동, ④ 생활이념의 4가지의 要因이 건전해야 한다. 즉, ①의 생활소재로서의 상품 등의 생활물자가 윤택하게 공급되고 그품질이 안전 유용할 필요가 있다. 단 ②의 생활환경, 水・公空・土壤 등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생활소재가 공급되더라도 그 것을 이용하는 삶의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무의미하다. 또한 ③의 생활행동은 그 소재를 사용하고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을때 생활기반의 安全化가 있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上의 ①-②-③이 아무리 바로 되었더라도 ④의 생활이념이 확립되지 못하면 안된다는데 있다.

세제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세탁세정 등의 기본적으로 불가결한 작업에 있어서 생활소재의 문제이고 생활환경의 문제이며 생활행동과 생활이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을 무시한 대응으로 단순상품 자체의 양부, 효율의 고저를 물어서 세제문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만 소비자 운동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면에서 우리나라로 고도산업사회 과소비(경제력의 확대)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

등장하여 합성세제의 시장성은 급성장하고 방방곡곡에서 이를 사용하여 이제 상수원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택할 점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2. 洗劑問題와 消費者 運動의 論理

소비자가 세계문제에 관해서 소비자 운동의意義를 발현시키기 위하여서는 많은 조직을 갖고 논리를 맞추어 충실한 운동을 전개시켜야 한다.
① 생활체험에 의한 생활요구를 주장하며 소비자는 생활자의 고생활전문가이다. 생활실감의 뒤의 요구는 귀중하며 그것을 절대로 은폐하던지 억압하여서도 안된다. 소비자 운동단체는 이와같은 생활요구를 집약하여 정리하며, 사회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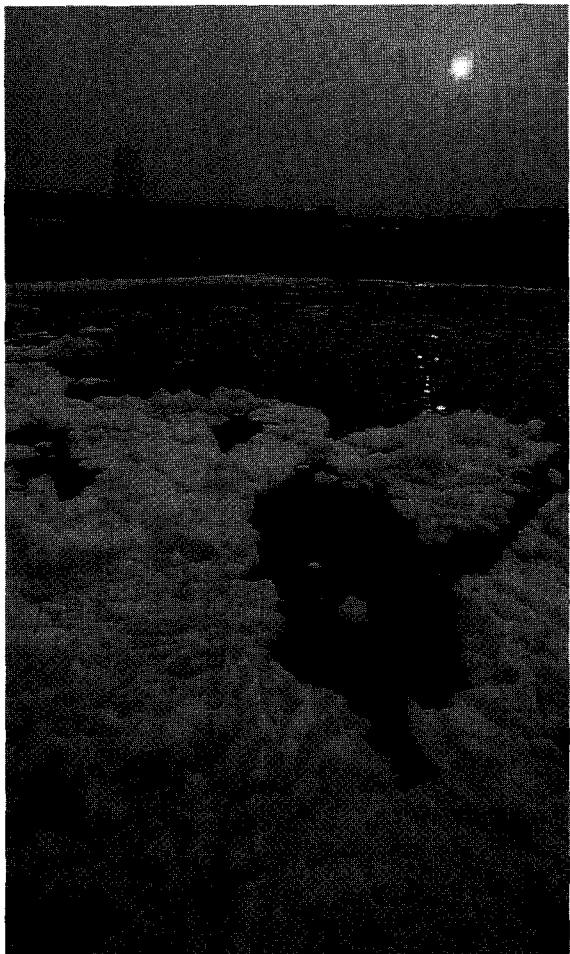
② 생활정보를 수집하여 이것을 사회적으로 표명한다.

물리화학적인 정보이외의 소비자의 실생활에 따른 인상, 체험, 감상 등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성, 논리성을 존중한다. 소비자의 조직으로서의 고찰로서 운동의 이념은 과학성이나 논리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정의감에 입각한 주장이라도 대단히 정서적이고 충동적·독선적이 되어서는 사회적인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소비자 운동의 행동규범이나 측도는 논리성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④ 人間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요구에 충실하여야 한다. 생존권이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해도 침묵이나 인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는 자타의 인격에 대한 불성실이고 무책임한 시대라고 도 할 수 있다. 그 상품이 나돌아 다닐때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황폐화 될 것이 예견될때는 조직적인 요구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⑤ 단결과 연대의 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소비자 운동은 협력에 의하여 큰 사회적 능동성이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기존 기업이나 행정의 체제적인 제약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소비자의 요구가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



생존권이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해도 침묵이나 인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는 자타의 인격에 대한 불성실이고 무책임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상품이 나돌아 다닐때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황폐화 될 것이 예견될때는 조직적인 요구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 그러나 민주적인 수단으로 최대다수가 합하는 한계를 발견하여 그 속에서 통일적인 의견을 집약하여 사회적 영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3. 洗劑問題와 消費者 運動

근래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고 있는 때에 소비자 운동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합성세제의 올바른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① 행정의 자세, ② 기업의 체질, ③ 법규제의 체제, ④ 과학기술의 체제, 연구자의 위치, ⑤ 여론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長·中·短期的으로 ① 이상의 개선대상의 포착, ② 개선의 조건설정, ③ 개선의 시기를 만들며 ④ 개선의 수단을 준비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시킨다.

우리나라도 특히 근래 곳곳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이성을 잊고 경거만동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급격, 즉시 적대 완전주의적인 행동은 오히려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혼란을 자초하게 됨을 경계하여야 한다.

단편적이고 감정적·충동적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객관적·현실적인 대응이어야 하며 올바른 주장을 사회여론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운동단체는 배격해야 한다. 합성세제 문제는 ① 본래 환경과학기술 행정 대책의 과제로 삼도록 노력한다. ② 민주적인 요구로서 소비자의 환경권이나 생활권 옹호책을 과제로 삼는다. ③ 국민여론의 발전으로서 메스콤 매체를 협력 요청한다. ④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접촉과 행정창구(시민과 소비자 상담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원, 환경연구원 등)를 이용하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이상 ⑤ 가지와 같은 대사회적 활동을 추진하는데는 운동 조직 내부에서의 문제의식이 명확하고 현실파악이 현저하며 행동에너지가 충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강습회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⑥ 째로 운동조직의 임원들의 임무가 중요하며 문제

본질을 분명히 하여 대내외적으로 운동목적을 밝히고 다른 단체와의 연대강화도 적극 필요하다.

4. 우리나라 洗劑消費 事情

우리나라의 세제중 70年代만해도 비누 사용량이 우세했는데 80년에 들어서 합성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70년에 1:2에서 80년 1:6으로 증대하고 일본의 단위 면적당으로 비교하면 환경부하 수준은 스웨덴 미국의 약20배 영국의 약6배, 서독의 약3배라고 한다.

환경내에 방출되는 합성세제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보급은 35%에 불과하며 부영양화 인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廢水處理場내의 박포현상이나 오염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환경내 존재농도와 생체영향에 관한 생물학적 허용농도 수준은 상당수치에 이르고 있다. 합성세제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도 우리나라는 이제 초보 단계일뿐이다.

80년도 경성 ABS를 연성 LAS로 대체한 것 외에는 소비량이 급격 상승하여 근래는 이 합성세제를 증산하기 위하여 몇개 기업체들이 생산준비 단계라고 하니 더욱 어려운 처지이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는 이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5. 洗劑運動의 2가지 흐름

우리나라의 세제는 오래전에는 목초재를 침적하여 잿물을 이용하다가 비누가 들어옴으로서 그 사용범위가 넓어져 60년대만해도 순비누를 사용하던것이 산업발달과 소비성이 증대하면서 합성세제가 개발되어 처음 ABS(경성세제)가 80년에 LAS(연성세제)로 전환되어 근래에는 檸, LAS, 형광증백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수질오염 원으로 세제과다 사용이 문제시 되고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순비누만을 사용토록 하기는 그 물량확보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
세제문제는
앞으로 환경수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되고
합성세제의 인, LAS 등 하천, 호수
해역등의 오염은 부영양화나 합성 화학물질
오염문제 해결의 기초적 작업의 하나가
되어야 만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일부 온천, 해안지역 내육지 등 경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비누가 잘녹지(풀어지지) 아니하므로 비누이외의 세제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제를 고려할때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의류, 세탁, 식기세정 등 의식주의 위생학적 환경을 뒤떨어지게 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연수지역에서는 순비누를 사용권장하고 복합비누나 고급 알코올계의 세제를 이용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水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당사자에 대하여 양자가 서로 協力하여 서로 이로운 점을 보완하면서 우리나라의 세제에 관한 생활환경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努力하여야 한다.

6. 消費者와 科學者의 協力

세제문제는 당초에 과학자와 소비자 단체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여 합성세제인 계면합성제의 생체나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선진외국의 선례를 조사하여 사용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행정측도 이 견해를 연구자측과 협의하여 상호 철저한 토론을 갖을 기회를 가져서 우리의 실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합성세제의 문제성은 ① 피부장해, ② 경피흡수, ③ 임신율 저하, ④ 기성, ⑤ 생태계 영향 등이 지적되며 이 논쟁이 생체내 단순 환경내에 실제 잔류농도, 실제 작용형태, 실제 작용시간에서의 생체반응이 문제가 된다. 단지 적량사용이란 말로만 문제없다고 평균적인 논리구성은 불충분한 경지에 놓여있다고 본다.

의약품이나 식품첨가물 못지않게 문제가 복잡한 합성세제는 소비자의 의식주 실생활에 밀착된 인공화학물로 소비자의 관심이 강하므로 이상과 같이 학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과학자가 자기 연구지향의 사회적인 위치를 확실히 하여야하며 단순 논리나 기술 자체만을 배격하면 안될 것이고 그결과가 제 3자의 악용을 막고 진리탐구하며 正義의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제약을 이해하면서 연구결과는 주민사회의 영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예방적 측면에서 선택되는 대안이 요구된다.

앞으로 합성세제에 대한 연구범위는 水, 환경, 합성세제에 관한 환경화학, 위생학, 독물학, 생화학, 병리학 등의 자연과학으로부터 그 규제 관리에 관한 운동논, 존직논 등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 사회 인문과학 등 제분야에 관여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연구자와 행정 및 운동단체 관계자와 일반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 ① 합성세제 문제의 역사적 경과해석 ② 합성세제와 비누의 경제적 이윤에 관하여 경제학적 구명과 장래예측 ③ 호수나 상수원 보호지역 사회에 대한 조례제정과 경과조치의 연구, 행정단체, 기업등의 실태구명 ④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합성세제 대책에 관한 조사해석 ⑤ 주민의 의식조사 ⑥ 교육체계에서 세제문제의 취급조사 ⑦ 세제의 세정력 시험 ⑧ 실용체험 집약해석 등 광범위하게 다루워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하여 세제문제는 앞으로 환경수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되고 합성세제의 인, LAS 등이 하천, 호수 해역등의 오염은 부영양화나 합성 화학물질 오염문제 해결의 기초적 작업의 하나가 되어야 만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